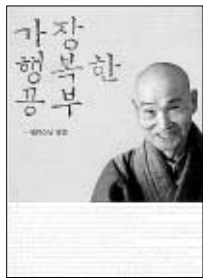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이웃, 친지, 벗에게 좋은 불서 한권을 선물하면 어떨까? 그런데 막상 불서를 사려해도 어떤 책을 고를지 망설인다. 부처님오신날 선물하

초파일 선물로 좋은 불서들

기 좋은 불서를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했다. 교리와 법문, 수필집 등 다양한 종류의 불서들이다. <편집자주>

이시대 선지식의 감로법문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지음  
시공사 / 9천원

40여년간 하루도 바빠서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지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곡성 성문사 조실·조계종 원로의원)의 감로 법문을 묶은 책이다.

스님은 감수(感受), 상상(想像), 의지(意志), 의식하는 것 모두가 다 비었다고 분명히 느껴야 참다운 반야지혜가 생겨 올바른 참선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스님은 '조사선(祖師禪)과 염불선(念佛禪)'이 왜야 올바른 참선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김시열 은주사 대표)

자기 경험 토대 불교 설명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청광 지음  
지식산업사 / 8천원

윤청광씨는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무지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한다.

소설가이며 극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자신의 주변 이야기부터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하는 경험을 토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불교를 알면 누구나 육신도 성냄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원망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라고 목청높여 주장한다. 물론 이 책은 저자의 힘찬 외침에 박수를 보내게 한다. 불교교리가 예시에 식으로 쉽게 설명돼 있다. (안정희 문예출판사 편집장)

마음 다스려 평화얻기



'화(Anger)'

틱낫한 지음 / 최민수 옮김  
명진출판 / 8천9백원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 시인이기도 한 틱낫한 스님의 <화(원제:Anger)>는 화가 쉬운 세상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먼저 화를 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 보라고 한다. 화는 남이 내게 주는 것이지만, 화를 냄으로써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화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도 내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용서도 화풀이의 방법이다' 등을 구절 구절 마음에 새겨들만 하지 않는다. (최창엽 디자인하우스 광고부장)

3개월간 결제과정 그려



'선방일기'

지허 스님 지음  
여시아문 / 5천원

선방은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한가이다. 선방의 속내를 비공개로 담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선방일기>는 결제 수행을 마치고 웅망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인,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결제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지허스님이 털어놓은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다른 맛.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을깨기), 늦게가들의 서열다툼, 원주스님 물레 솟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등은 책을 읽는 솔솔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박중서 씨앗을 뿌리는사람들 편집국장)

한국 선지식 33명 인터뷰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글/서화동·사진/김형주  
은행나무 / 1만5천원

한국경제신문사 서화동 기자가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지식' 33명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前 종정 서용·서암 스님, 해외교포의 선구자 송산 스님,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 한글대장경 간행의 주역 월운 스님, 석주 스님, 고산 스님 등을 두루 만났다.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에 몰두해 온 고승들의 눈에 비친 요즘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무엇보다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현룡 스님) "자기 목을 똑 떼어 나무에 걸어놓고 담배는 용기와 기백, 노력을 가져야 한다"(성수 스님)고 일깨운다. (최희정 마당넓은집 사장)

시·옛날이야기 같은 법문



'절간이야기'

오현 스님 지음  
고요아침 / 9천원

백담사 무궁선원 회주 오현 스님이 펴낸 <절간이야기>는 시력 35년에 걸친 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독특한 시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는 시 같기도 하고, 옛날이야기 같기도 하며, 법문 같기도 한 32편 '절간이야기' 연차 시와 구도자로서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30여편의 시가 설악산의 3사인 백담사, 선홍사, 낙산사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연차시 '절간이야기'에서 오현 스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절 주변 이야기를 산문시를 통해 담담하게, 조금은 능청스러운 화법으로 들려준다. (심길자 우리출판사 부장)

외국인에 잘 소개하기 좋은 책



'Tales from the Temples'

(절집 옛이야기)  
커뮤니케이션 와우 엮음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축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등제가 최고 아름답다고 한다.

산사마다 펼쳐진 심심연화(心蓮蓮花)의 장관을 외국인에게 보여 주면 원더풀을 외친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답이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절을 찾으려 자신있게 이 책에 실린 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엮은이의 정성으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이 책을 선물하는 이의 마음은 훈훈해진다. 전국 주요사찰의 역사와 건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초기불교 이해에 큰 도움



'한글아함경'

고익진 편역  
동국대 출판부 / 1만5천원

<한글 아함경>은 출가 수행자 이상으로 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고익진 박사가 강의자료를 엮어 발간한 경전입문서다. 불교입문서나 불교학개론이 안내서와 같은 것이라면 이 책은 여행을 시작해서 불교경전이라는 길에 들어섰을 때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아함경>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아직까지 불교에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를 논한 텍스트가 부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시 대중불교를 이해하는 구실적 역할을 한다. 원시불교시대의 교리와 설법이 가득 담겨 있어 초기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조동규 책방 여시아문 부장)

깨달음 담은 자전적 법문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지음  
민족사 / 1만2천원

<묻지 않는 질문>은 물질과 기계문명의 정점인 미국 한복판에서 정신문명의 요체인 한국 선불교를 가르치며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성찰의 목소리에 담은 자전적 법문이다. 핵심은 동자승이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禪)의 언어에 담은 '소타고 소를 찾네'(尋牛라는 가르침에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소화가 안되면 소화가 안되는 줄 알고,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이렇게 분명히 개인마다 본성이 있다. 그런데 어디서 찾든다는 말인가? 찾는 데서 그르친다"고 일갈한다. (고광영 불교시대사 편집부장)

출판인 추천 자서 불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	능인스님	은주사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봉규	씨앗을뿌리는사람들
고승열전	윤청광	우리출판사
금강경강의	남희근	문예출판사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재경	마당넓은집
감상자전	감산스님	여시아문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스님	디자인하우스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스님	우리출판사
달마서양으로 가다	진우기	불교시대사

어린이 인기 만화 불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가격
미소짓는 두 스님	틱낫한	파랑새어린이	8천원
어린이 불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6천원
어린이천수경	김호성	불광출판부	5천5백원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	강병호	화남출판사	8천원
법정스님의 슬기로운 동화	법정스님	동쪽나라	8천5백원
내 책장은 백백이	박관희	행복한 세상	7천원
영논이 스님	정수일	은주사	7천8백원
호랑이 꼬리에 지은절	이준연	대원사	4천5백원
석가모니지혜동화	허순봉	은하수 미디어	8천5백원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양태석	능인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4	통일법요집	편 집 부	조계종출판부
5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투 마스투	나무심는사람
6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7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은 주 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호 립
9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달라이라마	무 우 수
10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이 정	아 침 나 라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좋은 책 한 권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퓏내기 수도승의 기억

"나의 수계식은 이튿날 오전 네 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의 방에서 깜빡거리는 촛불을 곁에 둔 채 방석에 앉아 계신 스승님을 찾아뵈었다. 스승님 곁에 자리잡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경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승님께서서는 낮은 갈색 승복의 해진 곳을 꼼꼼하게 기고 계셨다. 만 사제(師弟)와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친첸히 바느질을 하고 계신 스승님의 모습은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보살을 보는 듯했다..."

틱낫한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리고 자유로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승이며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감옥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 스승의 옷자락

틱낫한 지음 | 진원출판 | 2003년 1월 | 8,500원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 2003년 1월 | 9,000원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라마 지음 | 강주현 옮김 | 2003년 1월 | 8,500원